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하향

전주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해제·식당·카페 밤 10시~새벽 5시 포장·배달만 허용

전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하향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3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에 대한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들의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로, 지난달 30일부터 3단계 최소 기준인 3일 연속으로 일일 13명 이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확연히 줄었다"면서 "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은 시가 지난 달 27일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 지 1주일만의 조치다.

김 시장은 "급속한 확산세를 꺾었지만 일일 1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유흥시설, 다중이용시설, 공원, 광장 등 방역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확진자 수가 다시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즉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하고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

는 만큼 자율방역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하향되면서 주요 방역수칙도 조정된다.

집합이 금지됐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플라텍, 홀덤펍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식당·카페 영업 제한시간은 밤 9시부터 밤 10시로 1시간 연장되며,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학원, 영화관, 독서실, 오락실, PC방, 300㎡ 이상의 마트, 백화점의 경우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이 해제된다.

사적모임은 시간에 상관없이 4명까지 유지되며, 백신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행사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참석 가능하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는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수가 제한되며 소모임과 식사도 금지된다.

편의점은 밤 10시 이후 시설내외 취식이 금지되며, 밤 9시 이후 공원 및 광장 내 음주·취식행위 금지 행정명령은 당분간 지속된다.

시는 행정명령은 완화되지만 3단계 단속조치는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별 점검반은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 공원, 광장 등 방역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영업정지,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김승수 시장은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그 순간을 빠르게 파고드는 것이 코로나19인 만큼 단계는 내리더라도 우리의 마음까지 내려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께서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앞두고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자율방역을 더욱 강화해주시고, 강력한 예방수단인 백신접종에도 적극 참여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생활권 중심 병해충 예찰·방제 총력

전주시는 최근 잦은 호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돌발병해충 적기 방제를 통해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자 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우선 시는 병해충 예찰방제단 14명을 투입해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녹지 공간, 병해충 확산 우려가 있는 주택 등 생활권을 중심으로 방제와 예찰에 나선다.

예찰방제단은 미국흰불나방,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등 병해충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약제살포, 수간수사, 외

기(5~10월)에 따른 조기 발견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를 운영하고 드론을 활용한 예찰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인접 지역의 감염목 변경 2km 이내 지역인 조촌동을 소나무류 반출금지지역으로 지정 공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는 학교 빛 공원 등 생활권 주변지역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해 민간 수목진료 전문가들이 수목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지원순환본부장은 "산림 돌발병해충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 및 적기 방제로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5115농가 농민 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

전주시는 농민들의 지금심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지역 내 5115농가에 총 31억여 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도내 농촌지역에 2년 연속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유지하고, 도내 농지 1000㎡ 이상을 실제 영농에 이용하는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수당으로, 올해에는 양봉농가까지 확

대해 지난해보다 555농가가 늘었다.

농가당 60만 원씩으로 책정된 공익수당은 올해부터는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패지카드)으로 지급된다. 이미 전주사랑상품권을 발급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이 15일 총전되며, 아직 지역화폐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전북은행 지점에서 전주사랑상품권을 발급한 뒤 다음 날 받을 수 있다.

시는 농민 공익수당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추석을 앞두고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2년째를 맞은 농민 공익수당은 올해 양봉농가까지 확대해 지난해보다 3억 원이 늘어나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조성에 힘이 될 것"이라며 "수당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국제어린이마라톤' 비대면 개최

세이브더칠드런과 내달 8~10일까지 진행... 남녀노소 참가자 2000명 모집

전주시가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2021 전주 국제어린이마라톤'을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전주 국제어린이마라톤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 세계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러닝메이트가 되어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아동들을 위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한 뒤 마라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4km를 달리면 된다. 1km를 달릴 때마다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미션이 알림으로 전달되며, 스마트폰 흔들기와 터치 등의 기능을 활용해 미션을 수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덕진공원과 세병공원에는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4km 추천코스과 함께 포토존을 설치해 맘껏눈썹터 등 전주시의 다양한 놀이공간을 홍보



전주시가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2021 전주 국제어린이마라톤'을 개최한다.

하고 마라톤 참여 인증샷을 남길 수 있다.

마라톤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제어린이마라톤 홈페이지(marathon.sc.or.kr)를 통해 참가자 200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1인 1만5000원으로, 모든 참여자에게는 티셔츠와 완주 기념메달, 돗자리(성인), 백팩(아동) 등 각종 기념품이 제공된다.

참가비 전액은 세이브더칠드런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를 좁히기 위해 추진하는 세이프백투스쿨(Safe Back to School) 사업에 활용된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의 권리 중 하나인 교육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전 세계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미션이 알림으로 전달되며, 스마트폰 흔들기와 터치 등의 기능을 활용해 미션을 수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덕진공원과 세병공원에는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4km 추천코스과 함께 포토존을 설치해 맘껏눈썹터 등 전주시의 다양한 놀이공간을 홍보

하고 마라톤 참여 인증샷을 남길 수 있다. 마라톤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제어린이마라톤 홈페이지(marathon.sc.or.kr)를 통해 참가자 2000명을 모집한다.

/김윤상 기자

전주 브랜드 활용 팝업스토어 한옥마을에 오픈

전주시, 17일~10월 24일까지 'YOUR TASTE JEONJU 팝업스토어' 운영

8개 업체 13개 상품 선정... BI 활용 포토존·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 진행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브랜드인 'YOUR TASTE JEONJU'를 활용해 만든 관광 굿즈(기념품) 판매 상점이 오는 17일 전주한옥마을에 문을 연다.

전주시는 관광거점도시 전주 BI의 인지도를 강화하고 전주민의 다양한 관광 굿즈를 개발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한옥마을 일원에서 '2021 YOUR TASTE JEONJU 팝업스토어(임시 상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7~8월 관광거점도시 전주 브랜드를 활용해 전주의 문화 또는 관광지 특성을 모티브로 한 공예품이나 대량 생산이 가능한 관광기념품을 판매할 업체를 공개 모집해 팝업스토어에 입점할 8개 업체, 13개 상품을 선정했다.

팝업스토어에서는 ▲금홍공예(김경철)의 스토리 전주(한지등) ▲우도에(이우엽)의 2021전주(컵) ▲기린이모(이영란)의 우드타일받침 ▲전씨비주얼랩(전필)의 풍남비어(컵) ▲플레르(진영하)의 Memory in Jeonju 북(그립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브랜드인 YOUR TASTE JEONJU를 활용해 만든 관광 굿즈(기념품) 판매 상점이 오는 17일 전주한옥마을에 문을 연다.

북) ▲수제, 각(김순덕)의 전주의 야경 무드등 등을 비롯해 다양한 기념품이 선을 보이게 된다.

시는 이곳에서 관광 굿즈 판매와 함께 BI를 활용한 포토존을 설치하고, 구매 인증, 여행지 방문 인증, SNS 인

증 등을 통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해 시민과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이끌 방침이다.

시는 이번 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해 관광거점도시 전주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주시민의 창의적인 관광 기념품을 활성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광거점도시 전주 브랜드인 'YOUR TASTE JEONJU'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이 주관한 '2021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디자인 콘셉트, 독창성, 사용성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굿 디자인(GD) 마크를 획득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팝업스토어 운영에 나설 것"이라며 "다양한 관광 굿즈를 통해 전주 여행의 추억을 잊지 않고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